

# 正祖代의 의료 정책과 《濟衆新編》의 간행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金 濤

## 머리말

《正祖實錄》 권52 정조 23년 12월 11일(갑오) 기사는 《濟衆新編》의 완성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濟衆新編》이 완성되었다. 상이 세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약 시중을 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은 診脈에 대한 비결과 湯藥에 대한 이론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널리 醫術의 이치를 탐구하여 위로는 《素問》과 《難經》으로부터 아래로 역대의 모든 처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고루 열람하였다.

本朝의 의학 서적으로는 오직 許浚의 《東醫寶鑑》이 가장 상세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글이 번거롭고 내용이 중복되는가 하면 소홀히 다루거나 빠뜨린 부분이 또한 많았다. 上이 여기에 교정을 가하고 凡例를 붙여 《壽民妙詮》 9권을 만들어 낸 다음 다시 내의원내 명하여 여러 처방들을 채집해서 번잡스러운 것은 삭제하고 요점만 취한 뒤 經驗方을 그 사이에 첨부해서 세상에 유행시킬 수 있는 책 1部를 따로 편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 원고 수정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상이 즉위한 지 24년이 되는 때에 이르러서야 책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내용을 보면, 原編이 8권이고 目錄이 1권으로서 風·寒·暑·濕으로부터 藥性歌에 이르기까지 모두 70目으로 되어 있었는데, 1目마다 먼저 진맥에 대한 비결과 증세를 서술한 다음 합당한 처방과 약제를 붙여 놓음으로써 멀리 외딴 시골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한 번 책을 보기만 하면 환히 알게끔 하였다. 그리고는 그 책의 이름을 《제중신편》이라 하고 鑄字所에 넘겨 간행해서 반포토록 하는 한편 내의원 도제조인 李秉模에게 序文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한편 같은 날 《日省錄》의 기사는 《제중신편》을 인쇄하여 奎章閣과 內醫院 그리고 강명길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에게 반포하는 내역을 적고 있다.<sup>1)</sup> 《제중신편》의 발문에서 강명길은 이미 내의원 어의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당시 세자였던 正祖의 명을 받아 18세기 의료 상황에 맞도록 《동

의보감》을 재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정조는 《동의보감》의 번잡함을 깎아내고 요점을 살린 의서를 요구하였다. 의서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직접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添削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제중신편》의 완성은 착수 후 수십여년만에야 이루어질수 있었다.<sup>2)</sup>

18세기 후반에 時宜 적절한 의서는 어떤 것일까? 정조의 의서 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미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를 수발하면서 《壽民妙詮》을 編述할만큼 의학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御醫들과도 먼저 의약에 대해 의논한 후 처치할 정도였다. 이렇게 의약학에 밝았던 그는 世子 시절부터 18세기 후반 조선의 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또 이에 걸맞는 의학 정책을 강명길의 《제중신편》 간행으로 구체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가 구상한 의학 정책은 한마디로 쇠퇴하는 관주도 의료 기관을 대신하여 성장하고 있던 민간 의약업의 요구에 충실한 그러한 의서를 정부가 만들어 주는 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의료 혜택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는 《동의보감》 이후 새롭게 수집되고 있던 다양한 의학 정보-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 뿐만 아니라 私撰 경험방들의 증가-를 추가함으로써 시대에 유용한 의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정조가 주창한 의학은 바로 시대에 적절한 '時醫'였기 때문이다.

## 一. 18세기 후반 都城 지역 醫療 환경의 변화

### 1. 국가 의료 기관의 쇠퇴

왕위에 오른 正祖는 즉위 초부터 三代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sup>3)</sup> 국왕이 정치의 중심임을 항상 주장하였던 그는 '자신의 몸이야말로 萬機가 비롯되는 바이고, 백 가지 책임이 지워져있다고 보고 한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면 일이 벌어진다'<sup>4)</sup>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왕이 거주하는 都城은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하여 중요시되었다. 이는 정조가 《海東輿地通載》라는 지리서를 편찬할 때, 《三輔黃圖》의 개념에 입각하여 첫머리에 京都를, 다음에 華城, 開城, 南韓, 沁都(강화도)를 기록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三輔黃圖》란 중국 漢·唐의 수도인 長安을 둘러싼 3개의 위성도시에 비유한 것으로, 수원(華城) 건설도 바로 이같은 都城 지역에 대한 배려의 일환이었다. 정조는 王宮이 있는 都城을 중심으로 사방에 畿輔重地의 도시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sup>5)</sup> 이

1) 《日省錄》 정조23년 12월 11일

先是 命首醫姜命吉 廣取古今諸方 刪繁取要 撰定醫書 書凡八篇 名曰濟衆新編 開印內閣 至是進獻 教曰新印濟衆新編 西庫三十一件 內閣一件 內局一件 內局三廳各一件 華城行宮一件 鄉校一件 留守營一件 貳衙一件 (中略) 醫官康命吉等五十人 各頒一件

2) 《濟衆新編》「跋文」

3) 정조 치세의 시대상과 정조에 대해서는 정옥자 외, 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이태진, 1993 <正祖-儒學的 啓蒙絶對君主> 《韓國史市民講座》13 참조

4) 《正祖實錄》 권5, 正祖 2년 1월 병인

는 18세기를 전후하여 都城 및 경기 지역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한 구도였다. 正祖에게 都城民은 국가의 근본이었으며<sup>6)</sup> 상업 및 행정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온전한 발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疫病에 대비한 의료 제도도 都城 주민들의 안전을 기한 방향으로 준비될 수 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都城 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sup>7)</sup> 서울 주변과 경기 지역의 인구가 17세기 후반 이후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증가 현상이 인구 이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 출생율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sup>8)</sup> 그보다는 인구 파악 방법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sup>9)</sup> 아니면 서울의 범위가 都城 밖으로 늘어난 결과인지<sup>10)</sup>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18세기의 서울의 규모 및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상업 도시로서의 서울의 성장은 상품 유통에 따르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유인하였다.<sup>11)</sup> 이들은 한강 주변의 津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따라서 18세기에 서울은 都城 주위 지역의 인구가 현격하게 증가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서울에 유입된 인구들은 도시 규모를 확대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疫病이 발생할 경우 그 전염의 경로와 수단을 쉽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선후기 여러 자료들에서 散見되는 惠民署와 活人署의 無力함, 그 가운데서도 특히 活人署의 쇠퇴는 이같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다.<sup>12)</sup>

선초이래 의료 기관은 중앙에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 活人署의 4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약재 진상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었던 審藥과 부·목·군·현 또는 津등에 소속된 醫學 生徒들이 있었다.<sup>13)</sup> 그러나 조선후기로 가면 전체적으로 의원직의 職窠가 줄어들면서 직제의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sup>14)</sup> 都城 지역의 대민 의료를 담당하였던 惠民署와 活人署의 기능 변화는 더욱 심하였다.

조선시대의 ‘病者’ 구료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적극적인 치료가 첫째요, 둘째는 환자를 건강한 집단으로부터 격리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惠民署가 전자에 해당된다면 活人署는 후자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헤먼서에서는 약재를 팔고 사는 행위가 가능했다. 반면에 活人署는 빈민과

5) 韓永愚·裴祐晟, 1995 앞의 글, pp.32-33 참조

6) 《正祖實錄》 권12 正祖 5년 11월 갑인

7) 楊普景, 1994 <朝鮮後期 서울의 人口 및 行政區域> 《서울의 경관변화》 (서울학연구소) 참조.

8)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의 商業都市로의 성장>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학연구소) p.364

9) 鄭演植, 1992 《朝鮮後期 役摠의 運營과 양역변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0) 손정목, 1977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일지사) p.159

11) 고동환, 앞의 글 참조.

12) 許在惠는 18세기 惠民署와 活人署의 무력해진 원인을 의관들의 나태와 이익에만 급급한 태도에서 찾았다(許在惠, 1990 <18세기 醫官의 경제적 활동양상>, 《韓國史研究》 71 참조). 물론 이러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주변의 인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결과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데 있다.

13) 孫弘烈, 1987 《韓國中世의 醫療制度 研究》 pp.166-197 참조.

14) 許在惠, 앞의 글, p.95참조

환자들에게 약재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구료기관의 기능이 강했다. 活人署가 都城 내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대문 東·西의 大路 외곽에 위치하였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였다.<sup>15)</sup>

18세기를 전후한 惠民署의 변화 양상은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惠局志》<sup>16)</sup>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조선후기까지의 惠民署의 역대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惠民署는 원래 고려시대의 惠民局을 이어받아 설립된 것으로 局·署의 이름 등으로 불리다가 세종대에 惠民署로 개칭되었고 《經國大典》 이후 명칭이 고정되었다.<sup>17)</sup>

조선 전기 이래 惠民署는 都城 내 민인들의 치료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典醫監과 크게 차별성을 띠지 못하였다.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에는 典醫監과 통합되면서 官員이 대폭 감축되었다. 典醫監이 주로 양반층 이상의 치료에 주력하였으므로 惠民署의 필요성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였고 얼마 후 다시 분화되기에 이르렀다.<sup>18)</sup>

18세기에 이르면 惠民署와 典醫監의 기능은 서로 구분되어 ‘惠民署는 都民醫藥을 위해 설치되었고, 典醫監은 朝臣醫藥을 위해 설치되었다’<sup>19)</sup>고 운위되었다. 惠民署는 都城 일반민들의 의약 업무 중 주로 대민을 위한 약국 기능을 담당하였다. 典賣廳이라는 하부 기관을 따로 두고 戶曹로부터 돈을 받아 약재를 마련하거나 구료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藥契·人蔘契 등을 통한 모리 행위로 재산을 축적하여 惠民署의 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sup>20)</sup> 조선후기에 이르면 거의 모든 惠民署의 재원은 자체의 조달에 의존했던 것 같다.

惠民署는 活人署에 의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惠民署의 관원에는 종9품직의 말단이기는 하지만 活人署 참봉을 2인 두어 東西活人署의 救活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은 活人署에 常住하는 인원은 아니었다. 活人署에는 따로 의원을 分定하기보다는 惠民署 의원의 관할 하에 관리하였다. 惠民署는 活人署에 의원을 파견하는 일 뿐 아니라 약제도 進納하였다. 매년 大柴胡湯 10첩, 二聖丸·救苦丸 각 2劑, 陳艾 각 6編을 活人署에 지급하였다.<sup>21)</sup> 그리고 京外의 疫病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특별히 京外別救療官을 두었다. 이들은 癘疫·紅疫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의 명을 받아 진료와 함께 약재를 공급하였다.<sup>22)</sup>

15) 조선후기의 지도들에도 東西活人署는 위치의 변동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都城 외곽에 자리잡았다.

16) 惠民署의 연역과 분장업무 사례 등을 정리·수록한 책이다. 1719년(肅宗45)에 久任官 姜渭聘이 전제조 趙泰耆의 권유를 받아 成編한 뒤 1747년(英祖23)에 卞泰恒의 아버지가 증보하고 1778년(正祖2)에 변태항 등에 의하여 다시 修補되었다. 본 책은 1874년 강위병의 6대손 姜海秀가 등사하여 가장하고 있던 것이다.

17) 《惠局志》「沿革」官制條  
麗朝始置惠民局 掌救民疾苦 國初改局爲署 (中略) 屬禮曹-出經國大典

18) 《惠局志》「沿革」官制條  
仁廟丁丑 與典醫監 合爲一局 後復分置-丙子亂後 汰減冗官 時兩醫司 亦合爲一局 其年秋 因本曹員役等上言 依前分置

19) 《英祖實錄》 권1 英祖 즉위년 10월 경인.

20) 《惠局志》「官舍」  
典賣廳-舊例受銀 戶曹貿易唐材 以補萬民救療之需

21) 《惠局志》「進拜」  
東西活人署-每年大柴胡湯各十貼 二聖救苦丸各二劑 陳艾各六編

惠民署 관원들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번 자체 시험을 치렀다. 이 때 성적이 제일 좋은 자는 惠民署의 祿官으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이 지방의 ‘審藥’직이었다. 審藥은 지방의 약재 진상 등과 관련하여 검사관으로 파견된 직책이었으나 후기에 가면 약재의 유통과정에서 貢人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sup>23)</sup> 대청 무역에 참여하여 人蔘 등 高價의 약재와 唐藥材 등을 무역하면서 혜택을 보기도 하였다.<sup>24)</sup> 惠民署 관리들 가운데는 外任인 審藥의 직책을 자원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審藥이 체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방에 머무르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sup>25)</sup> 정조는 작간하는 審藥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의 釐正 의지는 죽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곤장을 쳐서 바로잡을 것을 명할 정도로 단호하였다.<sup>26)</sup>

혜민서가 주로 都城내의 民人에게 藥材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구료들 담당했다면 活人署는 都城내 民인들을 외부 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즈음하여 活人署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㉞ 예조가 啓文을 올려 都下에 癘疫이 치성하나 活人署로는 능히 두루 구료할 수 없습니다<sup>27)</sup>

㉟ 진흥청 당상 閔應洙가 말하기를, 癘疫이 치성하나 活人署로는 구료할 수 없습니다.<sup>28)</sup>

㊱ 1784년(正祖8) 여름인 8월에 서울에 傳染病이 창궐하였으나 惠民署와 活人署가 유명무실하므로 치료 방법을 강구하도록 命하다.<sup>29)</sup>

活人署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活人署 관리들이 나태하다는 점이다. 活人署에 파견되어야 할 惠民署 의관들이 왕래하지도 않고, 다만 庫直輩들이 지키고 있는데 토색질을 일삼고 병자 구료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sup>30)</sup> 둘째, 병자를 구료할 財源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活人署는 京巫女의 身布를 거두어서 員役 1년의 料布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1774년(영조50) 京巫女 제도가 혁파되면서 평안도 別餉庫錢 580냥을 특사받아 均廳으로부터 活人署에 지급하게 하였는데, 1779년(정조3) 京巫女를 復活하면서 均廳의 給代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이듬해인 1780년(정조4) 또다시 京巫女를 外方으로 내쫓음으로 活人署의 料布도 다시

22) 《惠局志》「進拜」

京外別救療-癘疫紅疫時 有朝令則舉行 京則兩醫司分半進拜 外則本署獨當

23) 金東哲, 1993 《朝鮮後期 貢人 研究》 (韓國研究院) pp.225-231 참조.

24) 許在惠, 앞의 글, pp.108-110 참조.

25) 《惠局志》「外任」

審藥-從九品掌看審進上藥材 與土庶軍兵救療等事 兩都日取才 分數祿官之次者差出 大全竝仕滿十六朔而遞 自下批日計閏 只四百八十日 舊例兩醫司 只以瓜滿次第分差 每有厚薄不均之弊

26) 《正祖實錄》 권28 正祖 13년 8월 기미.

北道の 鹿茸 공납에 審藥이 작간을 일으키자 정조는 매우 엄한 어조로 처벌을 명하였다.

27) 《英祖實錄》 권31 英祖 8년 5월 임진.

28) 《英祖實錄》 권55 英祖18년 5월 신사.

29) 《備邊司謄錄》 166책, 正祖 8년 1월 12일.

30) 許在惠, 앞의 글 pp.95-98 참조

나올 데가 없어졌던 것이다.<sup>31)</sup> 이처럼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活人署 쇠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惠民署나 典醫監에서 進拜받아 사용된 약재 등이 惠民署에서도 자체 비용 마련에만 힘쓰면서 소홀해진 원인도 작용하였다. 그러다보니 환자를 격리 수용할 活人署의 官舍가 오래되고 퇴폐해졌다. 비록 肅宗代 이후 活人署의 重建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큰 실효는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이처럼 活人署의 외양이 쇠락한 결과 급기야 1780년(正祖4)에 活人署의 혁파가 논의되기도 한 것이다.

사실상 18세기에 이르러 活人署는 외양적인 축소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물론 活人署의 혁파 논의는 「存羊之義」 「重官」을 들어 존속으로 합의되었지만, 문제는 조선 후기 서울 지역의 변화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를 活人署가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18세기 이전에는 典醫監과 惠民署의 역할이 혼동되던 것이, 18세기에 이르면 전의감과 혜민서의 기능이 분화 고착되면서 오히려 혜민서와 活人署의 기능이 문제시 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1780년(正祖4)의 논의에서도 正祖와 신하들은 모두 惠民署와 중복되는 活人署를 冗官이라고 지적하였다.

원래 活人署는 病幕을 설치하여 都城으로의 환자 출입을 억제하는 기능이었으므로 선초이래 都城 내 인민들의 적극적 치료를 담당하였던 혜민서와는 차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서 都城 주위가 이미 불어난 인구로 넘치고 있었다. 경기 지역의 확대와 함께 都城 밖의 인구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특히 四大門 외곽에도 都城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상의 잇점 때문에 小商人 및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는 小農들이 군집하였다. 따라서 都城의 외곽 지역에 설치되었던 東·西活人署는 都城내로 유입하는 疫病 환자를 차단하여 외곽에 격리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성저십리 주위에도 인구가 증가하여 活人署 주변의 환경이 변한 것이다. 결국 藥의 典賣 및 환자 구료라는 임무를 주 기능으로 하였던 惠民署<sup>33)</sup>에 비하여 活人署는 뚜렷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미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活人署의 都城 보호 기능이 약화되자 都城 주변의 전염병 대피소이자 격리소인 病幕들은 活人署가 있는 자리보다 더 都城 외곽으로 진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sup>34)</sup> ‘私幕’으로 표현되는 사설 病幕들은 都城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병자를 체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으며 都城 지역의 밀집된 인구를 보호할 수 없었다. 이는 活人署와 같이 유리하는 환자를 격리 수용할 마땅한 公共 장소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5)</sup> 비록 活人署의 官舍를 다시 수리한다해도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임시 病

31) 《正祖實錄》 권10 정조4 9월 기해

32) 《癘祭臚錄》 (<奎 12880> 서울대 奎章閣 소장) 1707년(숙종33) 1월 28일

33) 《英祖實錄》 권1 英祖 즉위년 10월 경인조에도 惠民署의 기능으로 약의 전매를 들고 있다.

34) 《癘祭臚錄》 1662년(현종3) 4월 25일조

35) 1756년 傳染病이 창궐할 때, 좌의정 金尙魯가 京城內 각 路上에 쓰러져 있는 환자들의 구료를 명하자 각 部가 환자를 活人署로 보냈다는 기록에서도 격리의 기능을 읽을 수 있다. 《英祖實錄》 권88 英祖32년 6월 정유.

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疫病 창궐시 正祖의 傳敎도 대부분 病幕 또는 結幕의 비용을 넉넉히 지급하여 구휼할 것을 신칙하는데 머무르고 말았다.<sup>36)</sup> 임시 病幕의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동을 엄금하여 疫病의 전염을 봉쇄하고자 했다. 病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병민으로 出幕한 자들을 조사·엄벌하도록 하였다.<sup>37)</sup>

都城 주변의 환경 변화로 18세기의 活人署는 제 기능을 잃어 버렸다. 유이민들의 구료 시설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자, 기근과 염병이 창궐할 때 유약한 幼兒와 老人들의 보호가 큰 문제였다.

## 2. 民間 의약업의 발달

관주도 의료 기관이 쇠퇴하였던 이면에는 都城 지역에 증가하였던 민간 약국과 의원들의 성장이 깔려 있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서울은 상업이 활발해지고 지방의 많은 물건들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sup>38)</sup> 이미 市塵으로는 늘어난 서울 인구의 상업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亂塵과 商舖들이 난립하였다. 조선후기 商去來에서 약재 또한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 되어 있었다. 사실 조선전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들이라 할지라도 약재 구입과 구득이 매우 어려워 관청에서 顏面을 통해 약간씩 얻는 정도였다. 16세기 후반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유희춘은 약재를 관청에서 조금씩 구매하거나 의원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며,<sup>39)</sup>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 醫生을 통해 약재를 구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sup>40)</sup> 약재의 구득이 쉽지 않았다. 특히 임관과 같이 약재 구득이 어려운 시기에는 약을 구하러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sup>41)</sup> 때문에 지방의 士族들은 자신들끼리 藥契라는 상부상조의 형태로 藥物을 마련·이용하고 있었다.<sup>42)</sup>

36) 《備邊司臚錄》 172책, 正祖 12년 5월 23일

正祖는 이때 傳敎하기를 城內的 輪行의 질병이 더욱 성하니, 結幕之需를 넉넉히 지급하고 사망자에게 恤典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37) 《備邊司臚錄》 172책, 正祖 12년 5월 25일 ; 《備邊司臚錄》 173책, 正祖12년 9월 1일 참조.

38) 최근 조선후기에 서울을 포함한 경강 지역의 상업 활동과 발달에 대해서 좋은 논문들이 많으므로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고동환, 《朝鮮後期서울商業發達史研究》(지식산업사, 1998) ; 이욱, 「18세기말 서울 商業界의 변화와 政府의 對策」(《歷史學報》 142, 1994) 등이 있다.

39) 《眉巖日記》 1573년 1월 14일자; 惠民署의 久任 임희빈이 와서 내 말을 듣고 혜민서에 鹿茸이 있으니 가루로 만들어 늘 2전씩 먹으라 한다.

위의 책, 1571년 7월 15일자; 參禮察訪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편에 許浚이 2함을 보내왔다.

40) 《默齋日記》(국사편찬위원회간) 下卷 p.288

嘉靖 37年(1558) 4월 15일 壬辰, 李好仁來問病 求藥丸 敎質醫生處

41) 임진왜란 중에 처해 있어 약재 구득의 어려움을 감안할 수 있지만, 《瑣尾錄》의 저자인 오희문은 머리의 이를 잡기 위한 약재를 사러 서울의 내의원에 마련된 매약소를 찾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르면 서울에는 수 많은 의원들과 사설 약국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柳得恭은 《京都雜誌》에서 당시의 시장들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藥房들은 모두 갈대로 발을 만들어 문앞에 늘어뜨리고 神農遺業, 萬病回春 등의 屋號를 내걸고 장사하였으며 이들 약 파는 사람들을 奉事라 한다고 기술하였다.<sup>43)</sup> 특히 오늘날 을지로 입구로 구리개[銅峴]라고 불리웠던 지역은 수 많은 약재상들이 운집하였던 모양이다.<sup>44)</sup> 물론 당시 약국이 이곳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藥局이) 서울 여기 저기에 散在되어 있었다<sup>45)</sup>는 《동국여지비고》의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을지로 입구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설명이지 그곳 이외 지역에 藥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체 商號를 내걸고 수 많은 약재를 취급하였는데 貢物로 납품되는 약재 유통에도 개입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人蔘 등과 같이 高價의 약재를 모두 서울 약국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常例였던 것<sup>46)</sup>으로 보아 고가의 인삼을 매매하여 남긴 이익으로 약국상의 경제적 지위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18세기 후반 서울에 거주하던 양반 유만주의 日記 《欽英》<sup>48)</sup>에도 이러한 서울의 난만한 약국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유만주<sup>49)</sup>는 1775년(영조 51)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1787년(정조 11)까지 기록하였다. 일생의 대부분을 서울 지역에서 보냈던 유만주는 아버지 유한준의 임지인 평

42) 《孤山文集》 「藥記」에서 李惟禕(1624~ 1701)은 약계의 형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계해 봄에 내가 瘡疹의 병에 걸려 약을 먹어 치료하고자 하였지만, 家貧하여 할 수 없었는데 遠近의 친구들이 서로 도와 주었으니, 이육은 감초6전·연교(역자주: 개나리) 4전4푼·치자 8전6푼·맥문동 5전·후박 2량5전·망초 7전을 (중략) 안몽상은 활석 2량, 문천기는 천궁 2량5전을 모두 기증해 주었다. 오호라 이 모든 것이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물건인데, 여러 친구들이 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을 구하였구나. 은혜에 따로 보답할 수도 없으니 기록하여 省覽케 하고자 함이다.'

한편 강릉지역의 藥局契를 분석한 논문으로 李揆大, <朝鮮時代 藥局契의 一考察>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8)을 참조할 것.

43) 《京都雜誌》 「市舖」

44) 《東國輿地備考》 권2 p.68 (서울시 영인본)

45) 위의 책, 권2 p.68 藥局 在銅峴左右商街 又散在各處

46) 《正祖實錄》 권31 정조14년 8월 9일(정사)

47) 박지원의 「廣文者傳」에도 광문자가 약국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주인은 매우 부자로 묘사되고 있다(朴趾源, 《燕巖集》 권8 「廣文者傳」)

48) 유만주와 《欽英》에 대해서는 朴熙秉, 1997 <《欽英》의 성격과 내용> 《欽英》1, (奎章閣 영인본); 김 호, 1998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서울학연구》11를 참조할 것. 《欽英》은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24책의 巨帙 필사본으로 필체가 다양한데 후일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정서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의 서울 지식인의 일기로 이처럼 자세한 生活事를 담고 있는 史料는 흔치 않다. 이 책이 어떻게 기계 유씨 가문으로부터 奎章閣에 흘러 들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1997년 12월에 奎章閣에서는 《欽英》의 가치를 인식하여 모두 6책의 영인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열람과 연구가 용이해졌다.

49) 유만주는 1755년에서 태어나서 1788년에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의 字는 伯翠, 號는 通園이며, 欽古堂이나 欽英外史라는 號를 썼으며 본관은 杞溪이다. 그는 18세기 후반 박지원 등과 어깨를 겨룰만큼 문장이 뛰어났던 著菴 俞漢雋(1732~1811)의 아들로 유한준의 형 漢邴이 27세에 後嗣 없이 요절하자 伯父의 養子로 입적되었다.



양과 충청도 비인 등지를 잠시 방문한 경우를 제외하면 30여년 동안 주 활동 영역인 서울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주 거주처였던 남산 아래 倉洞 즉 현재의 서울시 중구 南倉洞 주위<sup>50)</sup>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sup>51)</sup> 성균관 유생이었던 관계로 종로를 지나 서울 동북 지역의 명륜동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주로 서대문 밖과 남대문 밖의 청과동, 용산 지역 등으로 자주 외출하였다.<sup>52)</sup> 따라서 그의 서울 생활 일기는 당시 서울의 상업지역으로 새롭게 성장하던 서대문 밖과 전통적으로 物流의 핵심지인 남대문 밖에서 용산에 이르는 서울 남부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다.

꼼꼼한 성격의 유만주는 일기에서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느낀 것을 모두 기록하고, 번쇄함을 혐의하지 않아 家廟에 무슨 고기와 과자를 올렸는지 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데 무슨 약을 썼는지 하는 것과 무슨 책을 편찬하고자 구상했는지, 심지어 언제 옷을 갈아 입었는지 穀價의 높았는지 낮았는지 시시콜콜하게 기록하였다.<sup>53)</sup> 특히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던 만큼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유만주는 거의 매일 약으로 살만큼 약물과 처방전 구득에 매우 신경을 쏟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일기는 18세기 후반 서울 지역의 의료 상황을 보여주는 더할나위없는 좋은 자료이다.<sup>54)</sup>

유만주는 집안 사람들의 약재 求得을 위하여 한 두 군데가 아닌 여러 약국에서 약재를 구입하였다. 그가 거래한 약국만 해도 다음과 같이 일곱 군데 이상에 이른다.

5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 《洞名沿革考-中區篇》 서울특별시 p.343

51) 《著庵集》 권15 「祭從子晚柱文」; 권24 「族孫成煥哀辭」 유만주의 아버지 유한준은 자신의 문집에 아들과 손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52) 물론 그의 10여년의 動線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지만 詩會 등의 참가, 혹은 친척방문 등 몇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53) 《欽英》 「欽英庚子(1780)序」.

夫集記以日爲綱 而目之以四法焉 事也言也文也意也 以四法焉 而包括古今函囿雅俗 鋸而聖智英能之所作用 微而蓬蒿螻蛄之所生成 若耳之所聆 目之所睹 心之所感也 无不隨而筆之 不嫌煩瑣則廟享之何魚何菓 理病之何藥 擬編之何書 以至更衣之久速 穀直之峻平 咸載焉

54) 일전에 알려진 《眉巖日記》 《瓊尾錄》 등에 이어 근래에도 사료가치가 높은 일기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어 학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默齋日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굴·보고된 《政廳日記》 《頤齋亂藁》 등은 앞으로 사회사 및 생활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欽英》에 등장하는 서울 지역 藥局

약국명	비고	일기 기록
韓局	滋元茶方을 만들게 하다	癸卯年(1783) 4월 30일자 書滋元茶方 付製韓局
藥韓	저녁에 350文을 준다.	癸卯年(1783) 4월 25일자 夕三百五十文 給藥韓
水西藥局	淸金降火丹 5粒의 처방을 써 보내다.	癸卯年(1783) 6월 11일자 西藥書送淸金降火丹五粒 蓋按許浚之書 丹治 心肺虛熱
明局	丸 만들 재료 6종을 사오다.	乙巳年(1785) 10월 24일자 推來明局丸料六種
	藥 9丸을 보내 太乙神明丹인지 확인하 다.	丙午年(1786) 4월 21일자 送藥九丸 質于明局 書訂爲太乙神明丹 聞近日 人多服之 以防輪行時症云
藥林	丸을 만들어 오다.	乙巳年(1785) 10월 25일자 始邀藥林 合製丸 凍天閉戶 靜檢合藥(中略)
	丸劑에 山藥가루를 첨가하고 환제를 시 험하다.	乙巳年(1785) 10월 28일자 藥林朝至 添丸劑 以山藥之雪 試更略構稍乾 始合丸 以咎短未了
林局	免絲子 찌는 문제를 의논하다가 네 종류 의 衣香에 대해 묻고 부채를 선물하다.	丙午年(1786) 6월 21일자 召林局 申問免絲子蒸法 副以四種衣香 故貽南 簾一
洞局	蘇合元 제조를 의논하다.	乙巳年(1785) 1월 9일자 洞局至 議蘇合元 四分之一 與龍墨一笏
洞局	丸藥 만들 재료와 함께 鹿茸 등 각종 재 료를 가져오다.	甲辰年(1784) 3월 2일자 洞以丸料至 姑置附茸諸材
藥舖	慈患이 차도가 없어 아침 일찍 두번씩 蔡醫를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藥舖 에 들러 回生散 2첩을 지었다.	戊戌年(1778) 7월 17일자 慈患一樣 早朝兩尋蔡醫 廻過藥舖 製回生散二 貼

韓局, 藥韓, 明局, 藥林, 洞局, 林局, 洞局 등으로 불리우는 藥局商은 대개 유만주의 거주지인 남산 근처에서 가까운 지역들에 위치하였다. 먼저 유만주는 약국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구리개 근처인 明洞 소재의 약국(明局)을 가장 자주 이용하였으며 혹은 韓氏가 운영하는 약국인 韓局, 그리고 林氏의 약국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비싼 약재들과 약제의 품질이 문제가 될 때는 吳道洞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洞局)에서 주로 약물을 구입하였다. 아마 오도형은 약국상 가운데 藥理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히 필요한 약재를 살 때 유만주는 洞局 혹은 近局이라 하여 동네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서울 지역에는 수 많은 약국들이 있어 약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울지로 입구를 제외하고도 청파동 근처에 있었던 韓局<sup>55)</sup>, 유만주의 근거지인 남창동 근처의 洞局, 그리고 오늘날 청파동과 용산에 이르는 작은 개울물인 車川의 서쪽 즉 水西 지역에 여러 개의 약국들이 위치하고

55) 위의 책, 甲辰年(1784) 윤3월 15일자

‘1000문을 靑橋에 보내 韓局의 빚진 약값 11냥 2전을 갚도록 하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약국이 서울에만 성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방에도 약국이 존재하였다.<sup>56)</sup> 그러나 지방의 약국은 물산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서울을 따라갈 수 없었다. 유만주의 아버지인 兪漢雋이 평양에 부임했을 때 필요한 약재를 구하지 못하자 서울의 아들에게 製藥을 빨리 완료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데서도 이러한 사정은 잘 나타난다. 당시 평양과 같은 도시조차 서울만큼 약재가 풍부하지 못했다면 규모가 그 이하였던 대개의 지방 약국[鄉局]의 형편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57)</sup>

약국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조선 후기에는 의원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리게 되면 환자가 약국에서 그 약을 지어다가 달여 먹거나 혹은 丸劑의 경우 약국에서 제조를 해다가 먹어야 했다. 이른바 의약 분업이 이루어진 셈이다.<sup>58)</sup> 약국은 약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丸劑나 湯劑 등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였다. 약국은 약재 가격과는 별도로 湯劑 혹은 丸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工賃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만주와 같은 사대부들은 집안에 약재를 家藏하였다가 의원으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재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製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반드시 제조비를 따로 주었다.<sup>59)</sup>

주로 거래하던 약재상들과는 외상도 이루어져 약을 가져다가 먹은 후 약값을 치루기도 하고 또 약값의 일부만을 치룬 후 나머지를 후일 값기도 하는 등 거래의 형태는 다양하였다. 특히 품질 좋은 약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약재상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는데 약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전의 사기 행각은 ‘백통을 은이라 하고 염소뿔을 玳瑁라 우기며 개가죽을 貂皮라고 속여 팔 정도였으므로’<sup>60)</sup> 좋은 약재를 속지 않고 사는 일이 중요하였다. 유만주와 같이 의약에 밝은 사람조차도 속을 정도였는데 그 역시 간혹 질이 좋지 않은 약재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하고 있다.<sup>61)</sup>

한편 약재상들과 함께 조선후기 사적 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던 자들은 中人 출신을 포함한 사설 의원들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신분사의 관점에서 의관들의 양태를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다.<sup>62)</sup> 그러나 유만주의 《欽英》에는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56) 권병탁, 1986 《藥令市研究》 한국연구원; 洪淳柱, 1984 《大邱藥令市》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57) 《欽英》 甲辰年(1784) 12월 18일자. 還官會醫燦 伊日至自黃州 診商訂候 議出一藥方 欲製用而材料 有難覓得於鄉局者 隨錄擇買下送 付來貞鑑 買藥錢三兩 及西雉二十四首

58) 조선전기에는 藥局이 따로 없어 醫者들이 약의 제조까지도 담당하였다. 《默齋日記》 上卷 p.509; 嘉靖 31年 6월 18일 己巳, 州之醫生 以官令熟劑救急藥 賣于民間 以爲式云

《默齋日記》 上卷 p.256; 嘉靖 25年(1546) 9월 7일 辛酉, 醫生來劑藥

59) 위의 책, 甲辰年(1784) 4월 29일자

‘어머니의 鷄膏 값이 65文이고, 雇費가 5文이다.’

60)李文奎, 1995 <朝鮮後期 서울 市井人의 生活相과 새로운 志向意識> 《서울학연구》5, p.116 참조.

61) 《欽英》 丙午年(1786) 윤7월 5일자. 還桂附香于近局; 丙午年(1786) 윤7월 9일자. 試還桂附于局 更求之

진료를 하고 또 환자를 구료하였는지 잘 나타나 있다.

유만주는 아버지의 보약, 어머니의 갱년기 장애와 신경통 및 자신의 고질병 그리고 자식들의 전염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직접 수소문하여 처방을 받아 오기도 하고 혹은 의사가 유만주의 집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는 유만주의 집안에 자주 왕래하던 의원들이 왕진하였지만 처방이 잘 듣지 않을 때는 名醫라고 소문 난 의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미 서울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유만주가 접하는 의사만 해도 醫金, 醫李, 醫趙, 醫張, 醫禹, 醫徐, 新醫 등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강명길, 피재길, 이헌길 등 당시 名醫로 이름을 떨치던 의사들까지 모두 만나고 있다. 유만주는 당시 治病을 위해서 서울의 유명하다는 의사는 거의 다 방문한 셈이다. 《欽英》에 기재되어 있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은 당시 서울, 적어도 남산과 남대문 외곽 지역에서는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의원들의 실체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63)</sup>

서울 의원들은 양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된 자신의 고유 처방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전문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의료의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sup>64)</sup> 소아과, 痘科, 부인과 등으로 구분된 전문 분야는 당시 서울의 의원들이 얼마나 성행하였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만주는 한때 이러한 의사들을 ‘斷醫’라 칭하여 종합적인 의술을 갖추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상으로 치부하기도 하였다.<sup>65)</sup> ‘醫者는 기술의 정미함과 조잡함으로 구분되는데, (중략) 지금은 한 분야는 용렬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잘하여 (그 분야에서) 是醫라고 칭송받지만 다른 쪽에는 庸醫일 뿐’이라며 적어도 醫者が 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기술자로 전락하기보다는 仁術을 펼치는 通醫가 될 것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미 서울의 의원들은 分化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미 18세기 말 서울의 의원들은 전문화된 자신의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처방하면 곧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들도 산재하였다. 이러한 민간 의료의 양태는 의서의 간행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적인 의서보다는 痘科 전문 서적, 産科 혹은 소아과 서적 등 분과별 의서의 간행을 부추키기도 했다.

유만주도 딸 아이의 痘疹 증세가 심해지자 소아과 전문의라고 할수 있는 의원 이행눌에게 問診하고 있다. 결국 유만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通醫를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sup>66)</sup> 그리고 1784년의 이러한 주장은 몇년 후에는 전문

62) 金良洙, 1994 <조선후기 醫官의 顯職實職 진출-경기도 守守 등 지방관을 중심으로> 《清大史林》6; 김양수, 1999 <조선시대 의원 실태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誌》104

63) 醫張은 남대문 밖, 醫趙는 水西, 醫徐는 公洞(현재의 소공동 지역), 醫禹는 서대문 밖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 골고루 걸쳐 있다.

64) 《欽英》 壬寅年(1782) 8월 8일자. 京醫類 皆分科 如婦人醫小兒醫腫醫痘醫是也 余問諸忠謂 知則盡知 不知則盡不知 安有通此 而昧彼之理 是醫之未良者也 此言恐未然 要須思量

65) 위의 책, 甲辰年(1784) 11월 12일자. 或言凡此斷醫 皆一副所熟之家

66) 위의 책, 辛丑年(1780) 11월 18일자

‘저녁에 小兒醫 李行訥을 만나 申兒의 병을 의논하다.’

적인 의원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이르고 있다. 한가지 技藝에 능한 의원을 그 자체의 정밀함으로 칭송하였던 것이다.<sup>67)</sup>

유만주는 특히 소아 전문의와 痘瘡醫를 중시했는데 그의 아들, 딸 들이 모두 麻疹 등 전염성 疫病으로 고통 받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의학의 발달로 두창과 마진을 구분하게 되었지만 마진은 유아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었다.

정조 후반인 1786년 서울의 麻疹(홍역)은 유래가 없었던 毒疫이었다. 이때 유만주의 아들 구환 등과 친인척의 아이들이 전염되었다. 특별히 마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 서울에 큰 피해가 속출하였는데<sup>68)</sup> 유만주는 서대문 밖에 두창 등을 잘 치료하는 우씨 성을 가진 의사가 있음을 전해 듣고 그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sup>69)</sup> 醫禹는 말하자면 두창 전문의로 왕실의 春宮이 時疹으로 고통당하자 입시하기도 했던 명의였다.<sup>70)</sup> 이처럼 당시 의사들은 주로 자신이 잘 치료하는 科目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지방의 의원들인 鄉醫들 역시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약국의 경우와 같이 서울 의원들의 技藝를 따라가지는 못하였다. 1784년 胃를 상한데다가 신경통 등으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던 유만주는 11월 12일 醫趙를 만나서, 어머니 병환에 쓸 약을 의논하였다. 이때 醫趙는 西醫의 二四湯 방을 보며 ‘마땅히 먼저 通經하고 風濕을 제거하여 (중략) 通順해야 한다. 鄉醫의 이른바 破癥湯은 瘀血을 제거하려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sup>71)</sup>라고 하여 鄉醫의 수준을 폄하하고 있다. 이로써 평양만해도 서울 의사들인 京醫들에 비해 기술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鄉醫’란 칭호는 별로 기술이 없는 지방 의원의 수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정치,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의약업에 서조차 의원의 京·鄉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二. 《東醫寶鑑》의 活用과 《濟衆新編》의 간행

### 1. 朝鮮後期 《東醫寶鑑》의 活用

67) 위의 책, 丙午年(1786) 1월 29일자. 如一藝一能 皆行攝人之術 則醫張在所當推也

68) 1786년의 麻疹 발병은 김 호의 앞의 글 참조(1996), ; 조선후기 麻疹學에 대한 정리는 김 호의 앞의 글 참조(1997)

69) 《欽英》 丙午年(1786) 5월 3일자. 聞年四五十者 多死于疹 (中略) 聞西門外 有姓禹醫 能神治產痘疹三症 有疹之家竝問症 而來用其藥輒效 有必死之疹 每日用石膏八錢 連三日 回死爲生 審若是則亦神矣 凡出疹 藥皆二黃柴胡石膏之屬 而不用安神丸 無價諸料

70) 위의 책, 丙午年(1786) 5월 3일자. 先是宜嬪成氏疹命入侍 議今春宮之疹 又奉教入云 或傳時疹氣 用升摩葛根湯 瀉而索水 用升葛水清熱 用安神丸消疹後 限百日不敢食聞云

71) 《欽英》 甲辰年(1784) 11월 12일자. 邀醫趙議慈患 示西醫所出二四湯 斷曰通順 加桂實 爲通經去風已濕之劑 不須鍼灸 不須雜方 止可用通順也 乃若鄉醫所云破癥湯 則是擬破血瘀也 縱使有畜血 七七之後 安有破之可 論議最不可 的知者醫也

국가적 사업으로 《東醫寶鑑》을 완성한 광해군은 간행과 동시에 下三道 보급을 추진하였다. 비록 권질이 많고 내용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로 다른 서적들보다 간행이 어려웠지만 계속 출간을 申飭하였다.<sup>72)</sup>

출판 당시부터 어느 정도 지방 사회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sup>73)</sup> 《동의보감》은 그후로도 계속 확산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면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사회의 사대부들에게까지 보급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대부들은 《동의보감》을 발췌하거나 정리하여 나름대로 소화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지식인들은 《동의보감》을 양반이 갖추어야 필수 서적으로 이해하였다. 《흥영》에서 유만주는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4대 서적을 꼽았는데 《喪禮備要》 《동의보감》 《三韻聲彙》 《經國大典》을 들고 있다.<sup>74)</sup> 이 책들은 각각 喪禮와 의약 그리고 韻書 및 법률에 관한 것들로 당시 사대부가의 필수 서적이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민간 의료가 확산되면서 성장한 약국과 의원들 그리고 일반 양반들 모두에게 《동의보감》은 표준 의서로 받아들여졌다. 《동의보감》은 사대부들의 醫藥 지침서인 동시에 18세기 후반 증가하는 민간 의료의 활용서가 되었다. 전자의 경우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처방을 검토하였다면 후자는 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동의보감》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요약하거나 수정한 간편 의서들을 요구하였다.

질병이 발생하면 대개 환자가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므로 의원들은 환자의 집을 往診한 후 치료하였다. 유만주의 경우도 의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상례였다. 물론 앞의 구환의 마진 증세처럼 유만주 자신이 담당한 나머지 서대문 밖으로 醫寓를 찾아가 왕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의원이 왕진하였다. 이때 보통 환자는 말이나 가마 등을 보내어 의원을 대접하는데, 환영이 실통치 않으면 의관들이 잘 가지 않고 허세를 부렸던 것 같다. 유만주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張氏 의사를 모셔오기 위하여 水西 끝 그의 인척이 있는 곳에서 수레를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sup>75)</sup>

의원들은 대접이 소홀한 患家에는 잘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제의 처방에도 專權을 가지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과피회통》에서 환자가 약에 대해 알가알부하면 방문을 집어 던지며 치료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의원들을 통렬히 비판한 적이 있다.<sup>76)</sup> 그러나 의약을 잘 아는 집

72) 《光海君日記》권47 광해군3년 11월 병진

內醫院啓曰 以東醫寶鑑 分送下三道 使之刊刻事 曾已啓下 移文各道 (中略) 然猶申飭 各道整備材料 歲後卽爲分刊矣 回念此書 與他冊有異 小註分行 字數細密 刊刻甚難 藥名病方 小有差誤 卽關係性命 (中略)

73) 이규대, 1988 앞글

이미 17세기 초반에 강원도의 강릉과 같은 지역에 《東醫寶鑑》이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강릉의 《藥局契》에는 《東醫寶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출하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다.

《藥契仙案》

局中方書 毋借他人爲乎矣 其中東醫寶鑑乙 一切勿入他手 (논문에서 재인용).

74) 《欽英》 병오년(1786) 8월 17일자.

75) 위의 책, 丙午年(1786) 4월 18일자.

‘慈患으로 醫張을 모셔오려고 水西의 수레를 빌렸으나 하지 못하다.’

을 방문하면 사정은 달라졌다. 대개 의원들이 환자 가족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대부들이 雜藝라 하여 기술적인 의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거꾸로 의원들은 이점을 惡用하여 의료 사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다.<sup>77)</sup>

의학에 밝았던 유만주는 어머니의 신경통 치료에도 그동안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해둔 어머니의 病歷簿(病錄)을 놓고 의원과 토론을 거친 후 약제 사용에 변화를 꾀하는 등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질환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유만주는 1784년 늦여름부터 이듬해초까지 어머니의 痲痺痛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慈患症錄’ 혹은 ‘藥錄’ 등의 병상 일지를 기록해 두었다.<sup>78)</sup> 이러한 유만주의 노력을 일자 별로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慈患 치료를 위한 치병 日誌

월일	의원	거처	원인	처방	비고
1784.7.8	醫張	남대문밖	下焦 부실	가미공육당방	
1784.7.28	醫趙	水西	氣血이 막힘	開結敍經湯	醫張이 급하게 하초의 열을 내리려고 준제를 썼다고 비판함
1784.9.2	醫趙	水西		四蒸木黑膏	이전의 처방이 듣지않는다고 비판.
1784.11.3	醫徐	公洞	血分부족	七寶丹	「慈患症錄」을 정리해 보여줌
1784.11.16	醫卞		痛風	二四三妙湯	「자환증록」을 가지고 의논
1784.11.12	醫趙				醫徐의 칠보단이 극하므로 醫趙를 만나 「慈患新錄」을 보여주려고 함.
1784.11.26	醫趙	水西	衛氣不足	加味五物湯	그동안의 「藥錄」을 보여줌
1784.11.27	醫徐	公洞			加味五物湯 방을 의논하기 위함
1785.1.24	醫徐	"			順氣散
1785.1.24	醫趙	水西			醫徐의 순기산을 의논함

유만주는 「病錄」을 통해 의사들의 誤診을 미리 막았는데, 의사를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한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다른 의사에게 보여줌으로써 투약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약하기 전에 처방전을 검사하는 태도는 어머니의 구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1785년 8월 7일 유만주는 醫趙를 만나 豆蔻養胃湯方을 받아 두었다.<sup>79)</sup> 자신의 疴症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몇일 후에 다시 醫金을 만나 醫趙의 처방을 보여주며 의논

76) 《麻科會通》 권4 <吾見篇> 「俗醫」

77) 張之琬, 《枕雨堂集》 「記醫」

78) 《欽英》 甲辰年(1784) 7월 18일자, 陪校至承今十六日衙書 教慈患症錄 從伯意言如何 위의 책, 甲辰年(1784) 11월 20일자, 承今望日衙書 付來慈患症錄 教瓜膏無效無害 姑未多服 환자의 病錄을 작성해 의원과 의논한 경우는 이전 시기에도 행해졌다. 權鼈(1589-1671)의 《竹所日記》 1625년 1월 20일(己巳)자 일기는 학질에 걸려 病錄을 쓰는 일이 고통스러운 저자의 생활이 잘 나타난다(권복규, 1999 앞의 논문, pp.45-47 참조).

79) 위의 책, 乙巳年(1785) 8월 7일자.

醫趙赴邀 出豆蔻養胃湯方

하였다. 이때 醫金이 처방을 비판하고 다시 六和湯方을 써 주자 비로소 약을 지어왔다.<sup>80)</sup>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유만주는 스스로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대개의 질환을 의원들과 의논하였으며 이때 유만주가 활용한 표준 의서는 바로 허준의 《東醫寶鑑》이었다.

許浚의 《寶鑑》을 살펴보니 孫真人이 말하기를 여름에 五味子를 常服하면 五臟의 氣를 보하는 고로 五味子를 生脈散에 집어 넣는다.<sup>81)</sup>

許浚의 《東醫寶鑑》에 기록된 肥兒丸 條를 보니 疳을 감소시키고 積滯를 化하고 痺를 없애고 熱을 내리며 간을 공격하여 비를 보한다고 하였으니 밥을 많이 먹게 하고 蟲을 죽이는 것이다.<sup>82)</sup>

水西 藥局에 淸金降火丹 5립의 처방을 써 보낸다. 대개 허준의 《寶鑑》을 보면 청금강화단이 심폐의 虛熱을 다스린다고 한다.<sup>83)</sup>

醍醐湯을 밤에 비로소 먹었다. 허준의 《寶鑑》에는 제호탕이 더위를 식혀주고 煩熱을 내려준다고 한다.<sup>84)</sup>

유만주는 대개 의원이 처방을 주면 《東醫寶鑑》에 건주어 처방을 확인하였다. 또 스스로 《東醫寶鑑》의 처방에 의거하여 약재를 제조하기도 했다. 《동의보감》은 그야말로 의학의 표준서였다.

유만주의 신중한 태도는 당시 의원들의 의술을 믿지 않았던 데서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病歷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만주와 그의 아버지 등 집안 사람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과 써야 할 약재와 그렇지 못한 약재들을 의논하여 구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의원이 지어준 약재의 方文을 스스로 고치기도 하며 약재의 加減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85)</sup> 유만주는 의학에도 역시 신묘한 원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당시 文字에

80) 위의 책, 乙巳年(1785) 8월 12일자.

朝邀醫金 示養胃湯方 攻之而自出六和湯方 卽又製來

81) 《欽英》 壬寅年(1782) 5월 20일자.

攷許浚寶鑑 孫真人曰 夏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氣 故五味子入生脈散 脈者元氣也 又香薷散 治傷中一切暑病 或癘亂吐瀉 或昏塞欲絕

82) 위의 책, 癸卯年(1783) 5월 2일자.

考許浚寶鑑 肥兒丸 消疳化積癖磨清熱 伐肝補脾 進食殺蟲

83) 위의 책, 癸卯年(1783) 6월 11일자.

西藥書送淸金降火丹五粒 蓋按許浚之書 丹治心肺虛熱

84) 위의 책, 癸卯年(1783) 6월 13일자.

醍醐湯製入 夜始一服 考許浚之鑑 醍醐湯解暑熱止煩渴

85) 위의 책, 甲辰年(1784) 12월 18일자.

十四日草報(역자주: 아버지의 친서) 昨朝醫燦 診詳盡見前後病錄 及諸醫所命 己用未用之



는 무식한 채 기술만 전수하는 의원들을 비판하였다.

의학이란 王·伯의 나뉘이 있는데 이른바 王道란 大經大法이다. 이른바 霸道란 빨리 효과를 보아 승부를 거는 것이다. 의학 역시 이러한 玄妙한 학문인데 어찌 문자를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會通하겠는가?<sup>86)</sup>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을 얕본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한 가지 기술에 능한 의원을 인정한 경우를 보았듯이 醫張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러하다. 醫張은 유만주의 근처 동네에 살았던 모양으로 치료차 자주 방문하는 의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유만주 집안의 主治醫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였다. 그는 유만주의 집에 찾아오면 유만주의 딸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두루 진찰한 후 방문을 처방해주고 갔을 정도로 막역하였다.<sup>87)</sup>

醫張은 단순히 의술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脈度에 밝았던 모양으로 《神訣》이라는 診脈書를 저술하는 등<sup>88)</sup> 의원으로서 필요한 학식도 겸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만주는 그를 칭송하여 ‘한 가지 기예에 능하면 대개 攝入의 술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醫張의 경우가 그러하다.’<sup>89)</sup>고 칭송하였다.

유만주는 《東醫寶鑑》 처방에 수록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자신의 처방을 개발하고 있던 의원들을 높이 평가했다. 독창성과 함께 時宜性を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東醫寶鑑》이 표준적인 의서로 인정받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체의 체질 및 환경에 따라 처방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유만주는 《보감》에 실리지 않은 처방들은 반드시 따로 기록해 두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藥人 오도형과 五子丸이란 새로운 환제를 만들기 위하여 의논할 때에도 《東醫寶鑑》에 실리지 않은 약재임에 자못 기대를 걸고 있다.<sup>90)</sup> 또한 아버지 유한준이 평양에 근무하였을 때 알게 된 西醫(평양의 營醫)가 유만주에게 《東醫寶鑑》에 없는 자신의 비방문을 보내오자 은근히 그 효과를 기대

藥 而遂出加味順氣散方

86) 위의 책, 甲辰年(1784) 12월 19일자.

醫有王伯之分 所謂王者 大經大法也 所謂霸者 權制捷奇也 醫者儘是玄妙學問 豈不解文字者所可理會哉

87) 위의 책, 丙午年(1786) 2월 27일자.

朝於洞下見醫張(中略) 醫張至診甲女云 食傷兼蛔應 用山查神曲小茶 家大人臨診議下 元虛脚部不利 出加味拱六湯方云云 限二十貼 自季春日始服 問下血之症 另書厚朴煎方云云 出示蟠龍丸方云 藥甚燥不合用上 診慈候就藥煎方 減荊芥穗 代以黃柏鹽水炒褐色 令用三貼 以桂而診 乃書溫中益元湯方

88) 위의 책, 丙午年(1786) 2월 20일자.

下洞見醫張 又未果邀略閱其神訣一冊 皆論訂脈度之書也

89) 위의 책, 丙午年(1786) 1월 29일자. 註:55)과 같음.

90) 위의 책, 甲辰年(1784) 3월 27일자.

洞(역자주:오도형)議五子丸製曰 拘杞子免絲子冬青子蓮子五味子 兩數用九七五三一 冬青子卽女精 實不載於許浚寶鑑云

하고 있었다. 평양의 의원은 자신의 독특한 처방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으로 유만주는 그의 처방전을 필사하여 책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醫張이나 평양의 의사인 西醫는 이른바 《동의보감》을 기준 의서로 삼되 자신들만의 경험방을 가지고 있었다. 《동의보감》 발간 이후 200여년이 흘렀으므로 그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방들을 축적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러한 경험방들은 더욱 독보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和劑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매매되고 있었다.<sup>91)</sup>

아침에 평양의 西醫가 추천한 方文에 따라 從叔父가 蓼茸膏 2제를 먹었는데 (方文- 江蓼 1냥, 生鹿角-茸 대신에 쓰다-70냥, 白茯苓·牛膝·狗杞子 각 1냥을 銀 항아리에 넣고 끓이다가 細辛을 넣어 다시 졸인다. 3일 晝夜로 달인 후 버드나무 수저로 밥먹을 때 먹는다.) 전하기를 서명응이 西瀋이었을 때 700냥을 들여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나이가 80에도 눈이 밝고 음식을 잘 먹고 밤에도 허하지 않다고 한다. 다른 一方은 鹿角·砂糖·柏子를 삶아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西醫의 방문은 현재 수서에 2책으로 전해지는데 많은 方文이 《東醫寶鑑》에는 없는 기이한 것들이다.<sup>92)</sup>

蓼茸膏에 사용된 약재들은 모두 고가였다. 도대체 이렇게 다양하고 高價의 약재를 유만주는 어떻게 구득하고 관리하였을까? 또 약재 가격은 다른 물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였을까?

유만주는 자신의 집안이 사치를 할 정도는 아니며 검박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시 서울의 중산층 정도임을 암시한 적이 있다.<sup>93)</sup> 하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쨌든 유만주 집안의 약재 이용은 유만주 자신의 질병인 眼疾, 痔疾 등의 치료와 여름철 설사 증세 그리고 아이들의 痘·疹과 회충 등 기생충 감염 치료, 그리고 어머니의 갱년기 장애 치료 및 신경통 치료, 아버지의 보약 등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대개 유만주는 약재를 집에 家藏하고 있다가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 등에 전염되면 의원을 불러 진찰과 처방전을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재료를 가공하여 약재를 마련하였다. 간단한 경우에 丸劑든 湯劑든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약국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도 제조 과정을 검사하는 등 좋은 藥을 먹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썼다.<sup>94)</sup> 그것은 약재 가격이 당시의

91) 正祖는 이 실용적인 和劑들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의약 산업의 발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92) 《欽英》, 丙午年(1786) 7월 14일자.

因西醫薦方 從叔父服蓼茸膏二劑 其方入江蓼一兩生鹿角代茸七十兩白茯苓牛膝狗杞子各一兩和水盛之大銀缸以辛煎出三晝夜以柳匙摘食云 傳徐命膺莅西瀋時以直七百兩服此年今八十而眼視明瑩健飲食能近二小皿每夜不虛云 又有一方以鹿角砂糖柏子同煎以服其味絕佳西醫之方見在水西凡二冊而多寶鑑所未載之奇方云

93) 당시 중국으로부터 帽子 등 수입 사치품이 들어와 횡행하자 유만주는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되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서적을 200여권만 소장한데 대해 약간의 불만을 느끼는 듯 1000여권의 藏書家を 부러워한 대목 등이 있다.

94) 《欽英》, 甲辰年(1784) 윤3월 10일자.

檢合丸劑用西密七合和丸夜續丸之

물가와 비교해서도 그리 싼편이 아니었으며, 당시 약재 가공을 그대로 약국에 맡겨놓은 경우 가짜를 속아서 먹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약용도 蘇合元과 같은 약재는 재료가 모두 희귀하여 약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대개 가짜이므로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정도였다.<sup>95)</sup>

유만주는 집안에 家藏 중인 다양한 약재를 품목, 수량, 구입 시기 등으로 정리해 두었다. 그는 일종의 약 가게부인 약장부를 ‘壽服簿’라고 명명하였는데<sup>96)</sup> 간혹 이를 열람하여 모자라는 약재 등을 체크하였다가 미리 구입 저장해 두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약가는 低價의 경우 湯劑는 1첩에 3문에서 시작하여 보통 수십여문에 이르렀다. 丸劑는 이보다 훨씬 비싸서 가격이 수천문에 이르기도 하였다. 유만주家에서 사용한 최고가의 약은 앞에서 언급한 蔘茸膏였다. 인삼과 녹용 등 고가의 약물만을 넣어 만든 것으로 그 가격이 무려 700냥이나 하였다.<sup>97)</sup> 유만주가 살던 집보다도 비싼 값이었다.

매해 유만주의 집안에서 소비한 약재값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쌀값이 100문에만 달하면 살기 어려워 고생하던 일반 平民들에게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米價가 아주 비싸지 않았던 1778년 1년 동안에 유만주 집안 8인이 1년간 먹었던 미가의 총액이 대략 56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약가의 상대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sup>98)</sup> 평민들이 이러한 고가의 약재를 먹어본다는 일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보약이 아닌 치료제인 탕약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민들의 경우도 얼마든지 약물 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95) 《醫零》 「雜說3」 (김대원 앞의 글에서 재인용)

96) 《欽英》 丙午年(1783) 윤3월 23일자.

97) 위의 책, 乙巳年(1785) 11월 12일자.

98) 위의 책, 戊戌年(1778) 7월 23일자.

今米價不至太峻 而一斗直五十文 家人之食者 見方八口 日出三升六合者 二之計月十斗八升 而月有大小 人有盈縮 故八升屬剩餘而不論 只月出十斗 則歲一百二十斗 以東制作平石爲八石 價折一石七兩式 通計五十六兩零矣瑣矣

<표 3> 18세기 후반 米價와 藥材價의 비교

종류	명칭	가격	비고	날짜
米價		50文/1말	아주 비싸지는 않다.	1778.7.23
		25문/1말	米價가 싸다	1781.윤5.16
		10여문/1말	물가가 안정되었다.	1780.4.30
湯劑	益元散	10문/3첩	급성대장염, 설사병	1778.7.16
	藿香正氣散	12문/1첩	여름철 감기, 급성위장염	1778.7.16
	回生散	15문/1첩	吐瀉·癩亂	1778.7.17
	香砂平胃散	9문/1첩	소화불량, 위염	1778.7.18
	橘薑茶	10문	더위먹은 증상	1778.7.30
	淸暑六和湯	12문/1첩	더위먹은 증상	1782.5.20
丸劑	心神丸	3455文		1779.1.7
	六味丸	11냥 32문		1785.10.28
	殷享丸	970문		1780.9.11

\* 資料 : 《欽英》

유만주가를 비롯하여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湯藥 혹은 丸藥 등의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할 뿐 鍼·灸 등의 저가 치료를 선호하지 않았는데, 유만주가 접한 수 많은 의원들 가운데 鍼醫는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洪氏 성을 가진 醫者였다.<sup>99)</sup>

조선 전시기를 걸쳐 정부는 값싼 鍼灸 치료법을 권장함으로써 약물 부족으로 의료 혜택이 확산 되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침구보다는 약물 치료를 선호하였다. 왜 값싼 鍼灸를 저버리고 약물 치료에 의존하였을까? 이는 거꾸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비교적 약물과 처방전을 구득하기가 쉬워졌음을 반증한다. 조선전기에 약값이 비싸 病家의 大小를 막론하고 구입이 어려웠던 상황<sup>100)</sup>이나 약을 구하려다 家産을 탕진하였던 때와<sup>101)</sup> 비교한다면 약재의 이용에 그만큼 손쉬워졌다는 것이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약을 過用하거나 남용하는 폐단이 지적될만큼<sup>102)</sup> 약재 시장과 의료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당시 약물 濫用은 사회적 문제였다. 유만주도 약을 너무 좋아하여 方書에서조차 금하는 약을 제조하려다가 醫趙의 만류로 그만두었던 사실<sup>103)</sup>이 있었다. 당시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조선후기에는 약의 남용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주로 사용하던 약재가 너무 강하고 빠른 효과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사람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약효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풍습 때문이었다.

99) 위의 책, 丙午年(1786) 1월 16일자.

‘저녁에 鍼醫 醫洪을 만나다.’

100) 《世宗實錄》 권90 세종 22년 7월 28일

101) 《世宗實錄》 권60 세종 15년 6월 1일

102) 《欽英》 丙午年(1786) 윤7월 17일자.

思凡世醫之出醫藥 雜取陳根羅列十數種 夫是何能爲治炳 無寧別册新法 盡以斤兩爲藥重 而取單料 或二三料 以爲少文多質 和根拔去之方也

103) 위의 책, 甲辰年(1784) 7월 22일자.

還歷醫趙 議黃丸 劈指世人喜藥之病 況是丸爲方書之攸禁其言 爲大經大法 定以不製

世醫의 처방은 대개 蓼茸桂附(인삼·녹용·계피·부자)의 4가지 약이니 時體之醫가 쓰는 時體之藥이다. 이것들을 쓰지 않으면 병자나 옆에 지켜보는 자들이 약으로 보지도 않는다. 醫理와 藥理가 일찍이 이같은 적이 없었는데 4종의 약재를 쓸 환자와 아닌 환자를 막론하고 濫用하니 어찌 藥體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sup>104)</sup>

요컨대 《동의보감》의 간행 이후 사대부들은 의원들의 처방을 《동의보감》 비추어 검토하였고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동의보감》은 사대부들의 표준 藥典으로 활용된 것이다.

《동의보감》이 사대부들의 표준 의서로 활용되었다고는 해도 거질의 의서는 어려운 한문을 문제없이 독해할 수 있는 양반 혹은 中人 이상의 학식있는 의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중들과 대부분 글은 읽을 줄 모르고 기술만을 전습받은 의자들 혹은 약국 상들은 《동의보감》과 같은 거대하고 다양한 질환의 집대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長文의 어려운 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단지 한 두가지 전문 분야를 정리한 간편 의서가 필요하였을 뿐이다.

鍼灸보다는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조선후기 의료 상황은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약재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약국과 의원들의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의서 및 和劑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의보감》이 너무 거질이라는 점이었다. 《동의보감》 편찬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권질의 浩繁함과 처방의 중복을 들어 《동의보감》의 실용성을 비판하였는데 성호 李瀾은 《東醫寶鑑》의 錯雜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근세에 의관 허준이 《東醫寶鑑》을 지었는데, 먼저 《內經》과 《靈樞》따위로 《小學》의 頭篇과 같이하고 다음은 丹溪와 河間의 설을 드러내서 《小學》의 嘉言篇과 같이 하고, 끝에 병을 다스린 실적 및 여러 방문을 기재하여 《小學》의 稽古篇·善行篇과 같이 하였으니, 규모는 잘 되었다. 그러나 많이 늘어놓고 뜻은 소략하여 사람들이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sup>105)</sup>

실사 그렇다고는 해도 《동의보감》은 출간 당시 최고의 선진 의학인 明의학을 집대성한 책이었다. 《동의보감》이 출간된 후 100여년이 지난 17세기말 18세기 전반 홍만선(1664-1715)은 《山林經濟》을 저술하였다. 그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구급 처방을 각종 의서류 및 月令書에서 초록하여 <구급방>을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동의보감》의 처방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林園十六志》의 <葆養志>에도 《동의보감》의 인용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東醫寶鑑》 간행 이후 《東醫寶鑑》을 이용에 편리하게 발췌·요약한 간편 의서들이 많이 유통되었

104) 《欽英》 丙午年(1786) 7월 6일자.

世醫之藥 必出蓼茸桂附 此卽時體之醫 而時體之藥也 非此則病者 與傍觀者 皆不以藥視之 然醫理藥理 盖未嘗如此也 蓼茸桂附 有當用之病者 有不當用之病者 一例漫用 豈成藥體

105) 《성호사설》 「詩文門」 武經經

음을 보여준다.

《동의보감》 이후 간행된 의서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을 띄고 있었다. 먼저 조선후기 의학의 세분화 경향에 발 맞추어 痘科, 小兒科 혹은 婦人科 등 전문 분야를 특화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종합 의서로서의 《동의보감》의 특성을 살리되 가급적 중요한 요점만을 발췌 정리하여 간단하게 만들고 여기에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방을 추가하는 유형이다. 특히 두번째 경향은 《동의보감》 이후 새롭게 증가한 경험방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유만주의 《흙영》에 나타난 張氏姓의 의원, 평양의 의원 등이 사적인 경험 처방을 늘려가는 장본인들이었다.

<표 4> 《東醫寶鑑》 이후 간편 의서

제목	간행 연도	저자	비고
新撰辟瘟方	1613년	許浚	瘟疫 치료서
辟疫新方	1613년	許浚	癘疫·瘟疫 치료서
經驗方(四醫經驗方)	1644년	李碩幹·蔡得己 朴濂·許任 등	經驗方
三方	孝宗代	傳 宋時烈	경험방 (不傳)
痘瘡經驗方	顯宗代	朴震禧	두창 치료서
辟瘟新方	1653년	安景昌	瘟疫 치료서
龍山療痘篇	1672년	李蕃	痘瘡 치료서
古今經驗活幼方	숙종대	柳瑞	두창 치료서
舟村新方	1687년	申曼	《동의보감》 요약, 경험방
保嬰要法	17세기중후반	金佐明	최초의 소아과 의서
丹谷經驗方抄	미상	미상	《동의보감》 요약, 경험방
山林經濟	숙종대?	洪萬選	《동의보감》 요약, 경험방
醫門寶鑑	1724년	周命新	《동의보감》 요약
麻疹篇	1726년	劉爾泰	麻疹 치료서
及幼方	1749년	趙廷俊	최초의 소아과 종합 의서
醫寶	18세기후반?	미상	《동의보감》 요약, 부인, 소아과
幼幼一心	1781년	李廷楫	소아과 전문 의서
濟衆新編	1799년	康命吉	《동의보감》 정리, 노인편 증보

## 2. 正祖의 《壽民妙詮》과 《濟衆新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는 국왕 중심의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奎章閣이라는 새로운 文翰機構를 설치하여 비서실과 문한 기능을 통합하고 抄啓文臣 제도를 도입하여 관료들을 교육 시킴으로써 강력한 친위 文臣 세력을 길러냈다.<sup>106)</sup>

주자 성리학을 正學으로 정립하면서도 중국의 고급 문화는 받아들여 《古今圖書集成》을 수입하는 이용 후생의 정책을 펴고 있었다. 특히 의학과 같은 과학 기술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었다. 정조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자신의 통치 철학을 그대로 투영하였는데 특히 조선의학의 시발이었던 《동의보감》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정조는 특히 《동의보감》 내경편에 제시된 허준의 醫哲學에 깊이 매료되었다. 물론 의학이 철학과 이론에 국한되어 실용성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였으므로 간행된 지 200년이 지난 《동의보감》을 시대에 적절한 실용적인 의서로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의 의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했다.

첫째, 《동의보감》 간행 이후 변화된 생활 조건과 이에 따라 달라진 질병 양상을 반영해야 한다. 《동의보감》에서 수립된 의학론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었다. 대부분의 의서가 《동의보감》의 의학론에 의거하였으며 허준에 의해 분류된 인체관을 따라 의학 전문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신체를 둘러싼 談論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생활 조건이 변하면서 《동의보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비만’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면 건강의 적신호로 등장하기도 했고, 동시에 의료 환경도 《동의보감》의 시절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明初의 의학을 집대성한 것이 《동의보감》이라면 그후 도입된 명말 청초 의학의 이론을 소화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동의보감》 이후 간행된 수 많은 私撰 경험방들을 국가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정조의 구상은 실용성과 함께 이론적으로도 충실한 의서를 간행하는 것이었다. 국가 사업으로 기간의 많은 私撰 의서들을 종합, 정리하고 새로이 도입된 이론을 보충하는 한편 18세기 후반 새롭게 문제가 되었던 비만 등 생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이렇게 편찬된 의서는 18세기 후반 활발한 상업 활동에 따라 성장하고 있던 수 많은 민간 의원과 약국 등에 표준 의서로 제공될 것이었다. 당시 관주도 의료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성장하는 민간 사적 의료를 지원하는 길이 대민 의료 혜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때 문이다.

정조의 이러한 구상은 정조 스스로 편찬한 《수민묘진》과 御醫 강명길의 《제중신편》으로 완성되었다. 正祖는 1766년(영조42) 이래 11년동안 할아버지인 영조의 병 간호를 하면서 의학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sup>107)</sup> 그러나 의서 習讀의 목적이 英祖의 병 간호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정조 자

106) 정옥자, 1981 <규장각 초계문신 연구> 《규장각》4

107) 《壽民妙詮》 권9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 所收, 태학사 영인본 p.290)

自夫丙戌以後 先大王玉候彌留 予夙宵侍側 帶不解者 蓋十一年 而無日不從事於醫藥 于時就

신이 직접 저술한 《壽民妙詮》의 첫머리에는 ‘의학은 여러 목숨을 살리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事親者가 알아야 할 것이다’<sup>108)</sup>라고 하여 효도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자신의 의서 편찬을 중국 송 인종대의 《太平聖惠方》과 《皇佑濟衆方》에 비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聖惠’와 ‘濟衆’이라는 醫書의 제목은 者로서 백성의 고통을 위무하려는 왕정 이념이 잘 드러나 있다.

《太平聖惠方》은 宋代 최고의 종합 의서로 중국은 물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仁政’의 상징적 醫書로 높이 평가되던 책이었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에 宋 仁宗은 惠政의 모범처럼 운위되던 인물이었다. 1688년(숙종24) 11월 10일 肅宗이 備局 堂上을 引見할 때, 都城에 여역이 熾發하자 신하들은 송 인종이 內帑庫를 열어 백성들의 구료에 힘썼음을 강조하면서 仁政을 중용하기도 했다.<sup>109)</sup>

賢君 인종의 이미지를 농칠 정조가 아니었다. 正祖는 자신이 편찬한 의서 역시 ‘聖惠’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程伊川의 시에서 인용한 ‘壽民’이란 백성을 오래도록 살게한다는 뜻이었다.

한편 의서를 간행하면서도 正祖는 經學에서처럼 먼저 자신이 體를 세우고 用에 해당하는 작업은 충실한 학자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sup>110)</sup> 정조가 의학의 원칙에 해당하는 身形·精·氣·神 등의 인체론(體)을 세웠다면 用에 해당하는 활용의 문제, 즉 구체적인 증상과 처방, 本草의 정리 등은 당시 御醫였던 康命吉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康命吉이 저술한 의서의 제목을 《皇佑濟衆方》의 ‘濟衆’으로 御製하였다. 仁政의 상징으로서 편찬한 의서였기에 제목도 衆民을 구제하는 의미를 담아 《濟衆新編》이라 命名한 것이다.

正祖의 《壽民妙詮》 自撰 서문에는 ‘내가 원래 의학은 잘 모르나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나라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고대의 편작과 같은 名醫의 丸·劑·湯 등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라로 말한다면 중국 역대의 여러가지 良法·美制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것처럼 나라마다 당시의 폐단의 근원과 物情이 서로 다른 법이다. 마땅히 그 폐단을 밝힌 연후에야 좋은 제도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古法·美制라 해서 잡되게 시험해본다면 무익할 것이다. 의학도 원인을 알고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sup>111)</sup>라고 하여 의학의 처방도 시대에 따라 적절한 원인과 解法이 있다고 보았다.

정조는 의학의 體로서 고전인 《內經》의 정신을 본받았지만 用에 있어서는 당시의 시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藥과 치료법일지라도 현실을 무시하고 投藥·處置되서는 안된

東醫寶鑑(中略)

108)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의 <壽民妙詮>9권 自撰 序文.

109) 《癘祭臚錄》 강희 37년 무인 11월 10일

110) 金文植, 1996 《朝鮮後期 經學思想研究》 1장: 18세기 후반 正祖의 學術政策과 經世論 참조.

111) 《壽民妙詮》 권9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 태학사 영인본 p.290)

親撰序曰 予故不解醫 然醫人醫國 其理固一也 今夫歧扁以下古名醫 所命丸劑湯飲之愈人疾 起人死者 在國則三代漢唐宋明之良法美制也 其所論病崇之六氣五勞七傷 證之虛實寒熱脉之浮沈遲數 種種差別之存乎人者 在國則當時之弊源物情也 爲國者 必先究其弊源之所在 察其物情之所宜 然後按古法之當乎今者而行之 則危可安而亂可治也



다고 본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의학, 정조가 《동의보감》을 개편하여 《제중신편》을 간행하였던 기본 입장이었다.

正祖의 《壽民妙詮》 撰述 과정을 살펴보면, 의학에 대한 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自撰 서문은 《壽民妙詮》<sup>112)</sup>이 몇 단계의 시간적 선후를 겪으면서 찬술되었음을 말해준다.

㉠ 1766년(영조42) 이후부터 (중략) 《東醫寶鑑》을 놓고 神·形·精·氣에서부터 부인과 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각기 部門별로 證論과 脈訣 등을 초록하여 4권으로 만들고 伊川의 詩 가운데 “用時還解壽斯民”을 취하여 《수민묘전》이라고 이름하였다.

㉡ 얼마 후 생각해보니 湯液에 관한 여러 처방도 그냥 빼버릴 수만은 없어 다시 초록하여 별편 5권을 만들었다.

㉢ 책이 완성되고 나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가 근래에 와서 어지러운 초고들을 뒤져보니 이른바 별편은 이미 유실되었고 《수민묘전》만이 남아 있었다. 또 그것을 태만히 방치하자니 전날의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다시 楷書로 한부 필사하도록 하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와같다고 써본 것이다.<sup>113)</sup>

㉠ ㉡ ㉢의 시간 순서에 따라 正祖의 의서 편찬 과정을 살펴 보자. 먼저 ㉠의 단계에서는 《東醫寶鑑》의 편찬 순서에 따라 의서를 저술하되 湯液·본초 등 活用に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찬술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의 단계에서는 <본초>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別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일 이를 정리하면서 본초 등 의학 이론의 활용에 해당하는 本草 부분은 누락되었다.(㉢의 단계) 아마 원고를 정리하면서 의학의 體에 해당하는 원리만을 撰刊하기로 하고 본초 등의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壽民妙詮》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의학의 體를 중시한 정조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壽民妙詮》의 체제와 순서가 《東醫寶鑑》을 요약, 정리하였다고는 하지만 정조는 의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東醫寶鑑》의 모든 내용을 요약 全載하지는 않았다. 《壽民妙詮》의 편찬을 정리하고 《동의보감》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12) 奎章閣에는 《壽民妙詮》 <奎4809> 2권 2책으로, 正祖의 서문을 보면 모두 4권 4책의 분량이었지만 현재 후반부의 2책은 누락된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1,2책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필사자도 2인 이상으로 생각된다.

113) 《弘齋全書》 권179 「群書標記」의 <壽民妙詮>9권 自撰 序文.

<표 5> 《壽民妙詮》과 《東醫寶鑑》의 내용 비교

壽民妙詮	권	내용	내용	東醫寶鑑
	권1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津液, 痰飲, 五臟六腑, 胞, 蟲, 小便, 大便	內景篇	
권2		頭, 面, 眼, 耳, 鼻, 口舌, 齒牙, 咽喉, 頸項, 背, 胸, 腹, 臍, 腰, 脇, 皮, 肉, 脈, 手足, 髮, 前陰, 後陰	外形篇	
		天地運氣, 審病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	

<표 5>를 살펴보면 《壽民妙詮》은 《東醫寶鑑》의 내경편과 외형편 및 잡병편 일부를 수록하였을 뿐 《동의보감》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탕액(본초)·침구 등을 제외하였다. 정조는 《東醫寶鑑》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내경편」을 역시 비중있게 다루었다. 正祖도 <形氣之始>를 첫머리에 두고 形氣 및 精·神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였다. 국가의 都城 지역에 비유할만한 인체의 핵심인 內景을 중요하게 다루고 이를 輔佐하는 다른 신체 기능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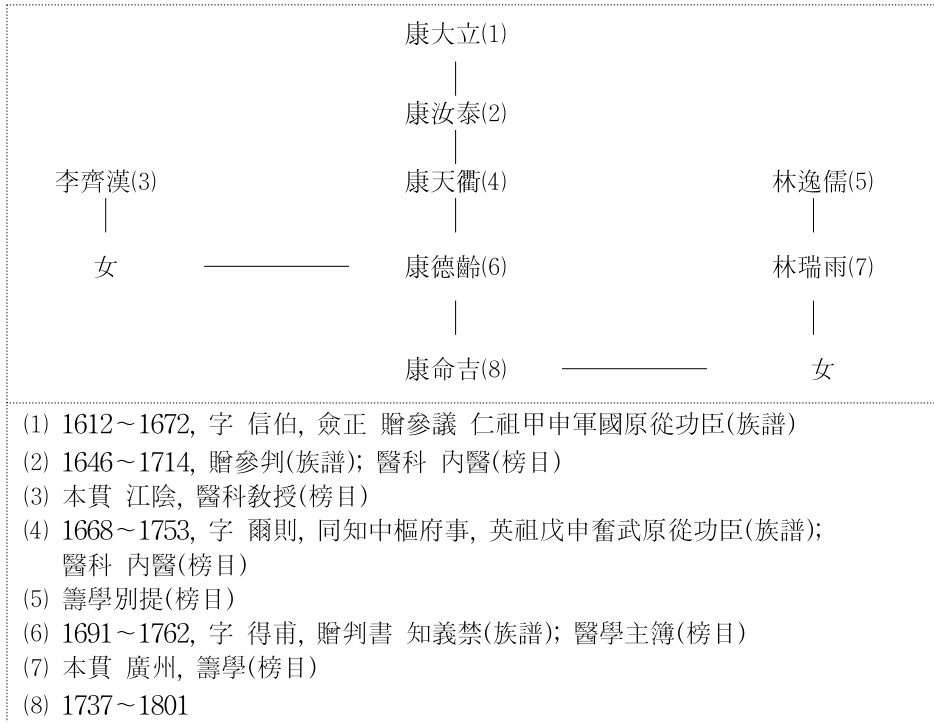
그러나 正祖는 같은 항목의 내용이라도 중복이 많거나 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특히 《동의보감》에 수록된 還丹法을 대폭 삭제하였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이른바 命門의 精을 腦海로 올려보내는 수련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정조는 이러한 구체적인 건강 유지법을 삭제한 것이다. 너무 道家的이거나 신비한 기술로 여겨진 부분은 제외한 것이다.

한편 病症에 대한 의학 이론을 개진하고 여기에 처방을 부기했던 《동의보감》의 방식 대신에 질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리하고 처방전은 삭제하였다. 정조가 《동의보감》을 요약하면서 처방전보다는 病因에 대한 이론을 초록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서로서 처방전이 없다면 과연 제대로 된 의서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가치가 반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수민묘전》의 「序文」에서 正祖는 亂藁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別篇으로 정리한 처방 기록이 散失되었으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요약 발췌로 만들어진 《壽民妙詮》이었던 만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별편의 처방전을 부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의학 이론만을 서술하고 본초·약 처방을 삭제한 후 의서를 찬간하게 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儒者로서 의학의 원리에 대해 운운하는 정도는 용인되지만, 처방전이나 침구 등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御醫 康命吉이 정조의 御命에 의거하여 찬진한 《濟衆新編》은 바로 정조가 생각한 전문가의 의서였다. 專門家가 지은 醫書에서 보다 정확한 처방전과 본초 지식의 활용을 기대했던 것이다. 전

문성과 함께 실용성은 《제중신편》이 이루어야 할 목표였다.<sup>114)</sup>

康命吉의 家系圖<sup>115)</sup>



康命吉은 1737년 출생하여 1801년 사망하였다. 그의 집안은 전형적인 中人<sup>116)</sup>집안으로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45명의 의관(17), 주학(26), 역관(1), 율관(1)을 배출하였다.<sup>117)</sup> 특히 籌學과 醫學에 종사한 자들이 대다수인데 강명길의 처가는 대대로 籌學을 전공한 집안이었다. 籌學과 醫學은 음양 오행의 상수론에 일정한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다른 중인 분과에 비하여 쉽게 상호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康命吉의 아버지도 원래는 籌學으로 입격하였다가 다시 의학으로 출신하였다.<sup>118)</sup>

康命吉은 의과로 출신하여 줄곧 의관으로 활동하였는데, 正祖가 潛邸에 있을 때부터 내의원 의관(1769)으로 正祖와 醫藥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후일 남양, 인천, 풍덕, 부평, 이천의 부사와, 양주 목사, 고양 삭녕의 군수, 목천 衿川의 현감을 지내면서 경기 근처에서 활동하였다.<sup>119)</sup> 특히 1794년

114) 《正祖實錄》 23년 己未 12월 11일

115) 信川康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79 《信川康氏大同譜》 pp. 269-271 ; 《醫科榜目》 등 참조.

116) 韓永愚, 1988 <朝鮮時代 中人的 身分 階級的 性格> 《韓國文化》9에는 조선후기 中人的 신분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117) 김대원, 1995 <康命吉의 《濟衆新編》> 《韓國保健史學會誌》 3권 1호

118) 이성무 등 編, 1990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9) 金良洙, 1994 <조선후기 醫官의 顯官實職 진출 - 경기도 守令 등 지방관을 중심으로 -> 《清大史林》 6 참조.

(正祖18)에는 내의원 首醫가 되어 입진할 수 있었으며, 1800년(正祖25)에 正祖가 위독하자 侍醫의 首醫로서 활약하였다. 그 역시 許浚처럼 大夫의 직위에 오른 의관이었다. 그후 대간에서는 正祖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康命吉의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그 전에 사망하고 만다.<sup>120)</sup>

康命吉은 正祖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제중신편》의 발문에서 그는 정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동의보감》이 비록 상세하다고하나 글이 번잡하고 말이 중첩되거나 증상을 빠뜨린 것이 있으며 지금 쓰이는 처방들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많다. 둘째, 《內經》에 이르기를 요점을 아는 자는 한 마디로 다 말할 수 있으나 요점을 모르는 사람은 산만하다.<sup>121)</sup>

강명길은 바로 《동의보감》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충하는 의서였다. 그것은 《동의보감》 이후의 발전된 의학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성장하던 민간 의약업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처방전 모음집을 제공하는 것이었다.<sup>122)</sup>

## 맺음말

《제중신편》은 17세기 중엽 이후 《동의보감》을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하려던 私撰 경험방들의 종합판이면서 18세기 후반의 실정에 맞추어 편찬된 의서였다. 官撰으로 준비된 《제중신편》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주된 대상은 바로 민간 의료 기관인 약국상과 의원들이었다. 조선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鍼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선호했던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약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약국과 의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중신편》에서 처방전을 수집·정리하여 제공해야 했던 것이다. 《동의보감》과 같은 종합 의서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鍼灸篇이 《제중신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조가 《제중신편》에 쏟은 노력은 매우 커서 기대 또한 클 수 밖에 없었다. 편찬 과정에서 정조는 직접 강명길이 編成하여 지어 올린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하거나 보충할 것을 지시하여 재차 정리를 명할 정도로 세심하였다. 《제중신편》의 편찬이 정조의 世子 시절에 기획되어 수십 여년만에 완성되었던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sup>123)</sup>

《제중신편》으로 《동의보감》의 실용화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간편한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어 19세기중·후반에 이르면 절정을 이루었다. 증세와 치료의 이론에 대한 구구한 설명은 간데없고 단지 처방과 처방전을 구성하는 약재명 그리고 이를 사전처럼 만들어 찾기에 편하도록 색인을 갖춘 의서들이 다수 간행된 것이다. 《醫方活套》 《醫宗損益》<sup>124)</sup> 《方藥合編》<sup>125)</sup> 《單方新編》<sup>126)</sup> 등이 대표적인 의서들이었다.

120) 《純祖實錄》 권1 즉위년 7월 갑오.

121) 《濟衆新編》 「跋文」

122) 《濟衆新編》의 의학적 내용과 강명길의 사상에 대해서는 본 발표회의 지창영 선생의 논문을 참조하실 것.

123) 《濟衆新編》 「跋文」

이른바 《제중신편》은 16세기 후반 17세기초 《동의보감》으로 정리된 조선 의학을 18세기 후반에 다시 한번 시대에 적절하게 리메이크함으로써 조선의학의 발달에 큰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

124) 《醫宗損益》 <奎12367> (서울대 奎章閣 소장)

125) 《方藥合編》 <古 7608> (서울대 奎章閣 소장)

126) 《單方新編》 <一蓑 古 615.135-J466d> (서울대 奎章閣 소장)